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광역교통 개선,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당부” -17일 수도권 서부권(인천·김포·부천) 지역 광역교통개선방안 논의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7일(금) 오후 3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수도권 서부권 지역(인천·김포·부천)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“수도권 서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”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간담회는 인천·부천·김포시 광역교통담당자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인천도시공사(iH), 부천도시공사,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및 광역교통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.
- 이 위원장은 “인천·부천·김포 지역에서는 과거 개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라, 광역교통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세부 사업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
 -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짚어 보고,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광역교통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“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와 인천시 간에 노선 계획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나, 이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갈 계획이다”라며,
 - 아울러, “이 과정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광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“개선대책 사업의 완료와 무관하게 지역에서 실제 체감하는 교통환경이 어떠한지, 광역교통 시설확충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살피는 것도 광역교통 정책의 일부”라고 덧붙이면서,
- “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, 국민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광역교통 정책을 펴나가겠다”고 약속하였다.

2023. 3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